

좌담

〈글쓰기〉와 〈말하기〉 교과목의 현황과 전망

· 일 시: 2004년 10월 11일(월)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장 소: 83동 403호

· 사 회: 임홍배 (글쓰기교실 실장 · 독어독문학과 교수)

· 참석자: 김동식 (〈인문학 글쓰기〉 전임 대우 강사)

 유정아 (〈말하기〉 강사)

 정병기 (〈사회과학 글쓰기〉 전임 대우 강사)

 김준성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김태환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임홍배: 오늘 좌담회 자리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가르침과 배움』 겨울호 특집으로 기획된 '서울대학교의 기초 교육'과 관련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에 <말하기>와 <글쓰기> 교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말하기>와 <글쓰기> 교과목은 서울대학교 전체의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것이어서 교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전공 분야를 공부하더라도 말과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 능력이며,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런 능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두 교과목의 신설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하기>와 <글쓰기>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면서 체험하신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 과정 전반이나 학교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당장 현실에 반영되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두 과목이 기초 교육 강화라는 목적에 맞게 튼튼하게 자리 잡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말하기> 교과목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학생들에게는 지금까지 접해 보지 못했던 <말하기> 교과목이 더 신선히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정아: 그 필요성에 비추어 보거나,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말하기> 교과목의 개설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도 뒤늦게나마 개설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말하기> 교과목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이론 부분과 실습 부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결국 실습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수업에 학문적 깊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자신의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점검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예상 외로 컸던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라면 수업 장소가 세미나실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말하기> 수업의 진행에 반드시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발표를 촬영하여 학생 스스로 점검하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실습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우 <말하기> 교과목이 개설된 시점에

서 다소 이를 감은 있지만 앞으로는 <말하기> 외에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들, 예를 들어 ‘이미지를 통한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강좌가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김동식: <인문학 글쓰기> 교과목의 경우 학기말에 60명 정도 학생의 글을 받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강의 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설을 이용하여 좋은 효과를 본 예를 말씀드리면,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글을 스크린에 올려서 함께 소리 내어 읽고 그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 스스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토론도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교과목의 주제를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풍부한 글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를 매학기 선정한

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인데, 이러한 교과목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 학기 동안 특정 주제와 관련된 글들을 함께 읽고 요약, 발표, 토론하며, 마지막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세미나 성격의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죠.

임홍배: <글쓰기> 교과목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정병기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학 글쓰기>의 경우에도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병기: 다음 학기 주제 선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부분적인 주제 변경이 아니라 주제 전체를 새로 찾아야 하므로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강좌들을 한 쪽은 경험 연구, 다른 쪽은 문헌 연구, 이렇게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궁극적인 글쓰기의 내용은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연구 방법론에서 달라질 뿐이죠. 문헌 연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경험 연구의 경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수강 인원의 50%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조사방법론을 배우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

* 편집자 주: 글쓰기 교과목은 세 분야로 나누어 개설되어 있으며(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과 기술 글쓰기), 해당 분야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제시된 주제의 테두리 안에서 한 학기 동안 스스로 관심이 가는 문헌들을 찾아 읽고 좀더 구체화된 주제를 선택하여 학기말에 한 편의 학술적 에세이를 완성해야 한다.

문입니다.

교재 선택에 있어서도 『문화와 정치 방법론』 등 이론적인 책들이 모두 신간이기 때문에 교재 구비에도 어려움이 따라 도서관에 수업용 도서로 지정해 둘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제 경우에는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독립신문〉을 이용하여 역사 자료를 꼼꼼하게 읽고 정리하는 방법을 체험하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독창적인 문제의식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도, 현재 학계에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연구 주제로 제기하는 학생도 있고, 독립신문을 읽다가 수사학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독창적인 문제의식들을 접하게 되면, 놀랍기도 하고, 그저 반가울 따름이죠.

강좌의 주제에 관해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주제가 특수하다면 학기마다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주제를 선택한다면 학기별로 읽을 자료를 바꾸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임홍배: 〈말하기〉 수업의 경우에는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특정 상황을 상정하고 발표를 하게 되나요?



유정아: 실습은 3분 스피치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말하기를 전제로 작성한 글을 제출하면 먼저 읽고 코멘트를 해줍니다. 학생들에게 특별한 상황을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든,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든, 말하기의 목적과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 열어 두었더니, 학생들의 발표 내용과 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를테면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정형화된 소개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임홍배: ‘글쓰기’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고 학생들이 이러한 형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기’에도 그런 형식의 교육이 필요한가요?

유정아: 물론 ‘말하기’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글쓰기’가 주제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

하기' 역시 주제에 따라 방법도 달라집니다.

저는 일정한 틀을 미리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잘못된 점을 올바르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너무 나의 틀에 맞추어 나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때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 과정을 한 학기 수강하고 나서 정보 전달이든 자기소개이든 설득이든 진심을 가지고 말하는 자신의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극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느끼는 공포입니다. 이러한 공포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지만, 자신의 말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쓰는 학생의 경우 더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수업을 하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발성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방송을 할 때 성악과 출신의 PD를 만났고 연극 계통에 계신 분들을 발성 특강 강사로 모시면서 발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죠. 발성법이 달라지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바꾸는 것처럼 자신의 '소리'를 찾게 되면 좋은 내용을 말하기 되고 나아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약 2주 정도 이런 연습을 하는데, 이는 말하자면 '말하기'의 동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김준성: 주로 이공계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대화를 할 때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정아: 이해가 되지 않는 글은 다시 읽어보면 되지만 말은 한번 지나치면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으로 비유하자면 혼학적인 말들은 마치 사고는 싶지만 사지 못 하는 상품 같은 것 이겠죠.

여담으로, 체육학과 학생들이 말을 잘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몸을 편안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병기: 제 수업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은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토론을 합니다. 지금 까지 서평 과제를 두 번 내주었는데 학생들의 수준이나 반응은 다른 사회과학 과목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리포트를 평가할 때 10점 만점에 논리성 3점, 내용의 충실성 3점, 주장과 비판 능력 3점, 기타 맞춤법

| 특집 | 기초 교육의 의미와 전망

1점 정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주장과 비판 능력을 강조했기 때문인지 독창성은 높은 반면 논리성에서 점수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식: 맞춤법 등의 교정·교열은 수업 T. A.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전체적인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맞춤법이나 문법에 대한 억압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 있고 소논문을 발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3주 정도의 수정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춤법 등의 교정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억압인데 거기에 자꾸 문법이나 맞춤법 같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들이대면, 글을 쓰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글을 마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법과 관련된 억압을 풀고 읽기와 쓰기를 연계시키고, 더 나아가 자기가 쓴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하기'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홍배: 억압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와 비슷한 문제로서 교수 개인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세계관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결론을 미리 내린 후 거기에 맞춰 글

을 써 나가게 될 위험이 있죠. 그렇게 되면 많은 발전은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말하기'에 있어 발성에서부터 자신감을 갖게 하듯이, 학생들 자신감 있는 태도로 텍스트에 접근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병기: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요구하는 소논문과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논문, 박사과정에서 요구하는 논문의 요건은 각기 다 달립니다. 대부분 학부에서는 객관성, 정확성을 중시합니다. 학부 과정에서 주어진 자료를 얼마만큼 정확하고 성실하게 읽고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면, 석사과정에서는 얼마 만큼 이론적 토대를 굳건하게 하여 관점과 사상을 정립하느냐에 더 큰比重을 두죠. 더 나아가 박사과정에서는 정립한 관점과 사상의 토대 위에 새로운 이론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학부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독창성보다는 많은 글을 읽고 습득하며 정리하는 과정이죠.



김태환: 학부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독창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창성과 정확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부분 글을 쓸 때 자신의 말로 풀어서 쓰려 하지 않고 책에 쓰여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려고 하죠. 글을 읽고 그 요점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유정아: 그런 능력이 기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준성: 그러한 능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글을 보면 비약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주

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깨닫고 논리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거듭되다 보면 분명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동식: 이전에 학부 교육의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 학생들끼리의 세미나 발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활동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돌이켜 보면 세미나 발제가 요약 훈련이었고, 요약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학생들은 예전 세대에 비해 그런 연습의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책을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훈련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핵심 교양 과목에서도 이러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모범이 될 만하다고 할 수 있는 우수한 논문이나 리포트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환: 그런 취지로 글쓰기교실에서 우수 리포트를 선정하여 글쓰기교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임홍배: 그런 우수 리포트가 있다 해도 학생들이 그냥 읽어서는 왜 우수한지 잘 모를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글이 왜 잘된 글인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는다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겠죠.

김태환: 현재 짧막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분석을 덧붙이는 것도 좋은 생각인 듯합니다.

유정아: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인 교육이란 앞서 언급한 학생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 요조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학생들 개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겠죠. 대학이 학생들에게 생각을 기르는 학습의 기회를 부여 한다면, 그 중에서 저는 한 학기 그 생각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홍배: <말하기> 수업에서 토론은 어떻게 다루어 지나요?

유정아: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 토론 방식은 ‘미 디어 토론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의 토론에서는 사회를 보는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토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 토론회에서 자주 보게 되는 CDE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방식 토론을 훈련시켜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맹점은 토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교수학습개발

센터에서 발행한 『가르침과 배움』 가을호에서 자신의 주장으로 상대를 눌러 이기기 위한 승 패 개념의 토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읽었 습니다. 저 역시 승패 개념으로 접근하는 토론 보다는 함께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 가는 토 론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말하기 수업에서는 여건이 허락된다 면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촬영하여 공개할 계 획입니다. 가능하면 초기부터 촬영하여 서서히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전 과정을 담아 보려 고 합니다.

임홍배: 오늘의 좌담에서는 수업 방식과 운영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에서, 이러한 과목이 궁극적 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 산적인 이야기가 오고간 것 같습니다. 서울대 학교의 기초 교육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생 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들 수업의 성과와 가능성을 정리해 보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